

데스크 시각



박 성 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마침내 새로운 날이 밝았다. 물고 물리는 사생결단의 싸움이 끝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매년 그렇지만 선거는 드라마틱한 사건의 연속이다.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기에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허를 찔린다는 말이 종종 회자되는 것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 곧잘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단 한 명을 선출하기에 '상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모 아니면 도'와 같은 게임의 양상을 보인다.

선거 운동이 끝나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뜻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 만큼 겹쳐히 그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과정이 녹록지 않았음을 전제한다.

소년공의 장애와 어머니의 눈물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각본 없는 드라마와도 같았다. "천신만고 끝에", "천 길 낭떠러지에서 회생한" 등등 지난한 과정을 수사하는 말들이 이를 방증한다. 다른 무엇보다 그의 삶은 극적이며 파란만장했다. 일련도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가 뒤뜰린 과거로 되가까지 보통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시련을 견뎠다. 특히 민주당 주장대로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에 대한 '정적 죽이기'는 교묘하면서도 집요했고 무

대선이라는 ‘연극’이 끝난 후

도했다.

지난 밤 개표가 시작되고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필자의 뇌리에 불현듯 한 노래가 떠올랐다. 1980년 4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사프가 부른 ‘연극이 끝나고 후’가 그것이다. 다소 진중한 멜로디와 재즈 같은 선율은 우리 삶의 한 단면을 은유적으로 비유했다. 익히 알려진 대로 1절은 관객의 시점에서 텅 빈 무대를 바라보는 단상을, 2절은 배우의 시점으로 텅 빈 객석을 바라보는 마음을 표현했다. 최명섭의 시적인 노래말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잔잔한 울림을 준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중략)/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침묵만이 흐르고 있죠(후략)”

대선이라는 연극이 막을 내린 지금, 유권자들은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이재명을 어떤 이미지로 떠올릴까. ‘사법고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으로 집약되는 성공 스토리 이면에, 소년공 시절 입은 장애의 상처를 생각할 수 있다. ‘프레스에 눌러 성장판이 비틀어져 버린 왼팔을 숨기려고 한여름에도 긴팔 셔츠만 입는 저를 보며 속울음 삼키시던 어머니, 공장에서 돌아와 허겁지겁 늦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제가 껌 세라 휘어버린 제 팔꿈치를 가만히 쓰다듬으시던 어머니’라고 회고했던 그의 페이스 북 글이 인간적인 연민과 통렬함을 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번에는 무대 위 배우의 시점에서, 다시 말해 이번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들 시선으로 바라 본 텅 빈 객석(관객)에 대한 단상이 있을 수 있겠다. 배우가 아닌

‘요주의 관객’으로 눈총을 받다 퇴장당한 윤석열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무대의 주인공이던 그가, 비상계엄이라는 자책골을 넣지 않았다면 여전히 독불장군처럼 무대를 쥐락펴락했을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서도 일팔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였지만 더 이상 그에게 허락된 ‘객석’은 없어 보였다.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던 대선이라는 ‘연극’은 마침내 끝났다. 호사자들은 저마다 결과를 평가하고 의미를 분석하겠지만, 필자는 각기 동서양 고전을 예로 작금의 상황과 연계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서양의 고전문학 가운데 하나인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무모함과 자기 광신에 대한 경고를 담은 소설이다. ‘모비딕’이라는 흰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에이허브 선장은 동료들의 만류를 외면한 채 복수심에 불타 먼 바다로 나간다. 결국 고래를 잡고야말겠다는 일념은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전원이 바다에 수장되는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윤석열이 ‘보수’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그의 무모함과 자기광신, 타협이 없는 극한 대립이 불러온 자승자박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달리, 출발선에 선 이재명 대통령의 맹자의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을 되새겼으면 한다. 맹자의 ‘양혜왕 상편’에 나오는 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강조했던 ‘먹사니즘’과 상통하는 것으로, 생활이 안정된 연후라야 항심을 전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곧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라는 ‘군주민주’(君舟民水)와도 직결된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하는데, 불과 두달 전 윤석열 파면이 이를 명징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은펜칼럼



박 상 하
사회경제연구원장

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정부는 역사 앞에 엄중해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우방인 줄 알았던 미국은 지난 80년 동안 지켜온 패권국가로서의 자리를 뺏겨치고 자기 살길을 찾느라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인권과 관용의 미덕을 자랑하던 유럽 국가들도 이민과 테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모범생인 독일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0.3%, 2024년 -0.2%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가 뒤뜰린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 교수는 트럼프 이후의 미국을 전제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를 설파하고 있다.

이 와중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와 OECD 모두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KDI는 0.8%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이 뒤뜰린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 교수는 트럼프 이후의 미국을 전제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를 설파하고 있다.

기 고



박 안 수
경제학박사·칼럼니스트

비록 중세시대지만 피렌체의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군주가 성공하기 위해선 군주로서의 능력, 그 시대에 부합한 시대성, 그리고 운도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국 처칠수상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유권자가 선거투표에 임함에 있어 자기수준에 맞는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 대통령을 맞이하게 됐다. 탄핵 재판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우리를 이끌 지도자는 태평성대와 문화 융성을 세종과 정조대왕의 리더십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미국과 새 정부 과제

유럽의 보수주의의 물결과 극우의 그림자는 우리 안방에서도 쏘고 있다. 과거 회귀의 명령은 100년 전 보호무역이라는 관세 폭탄이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어쩌다 긴들버거 함정에 빠져버렸는지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이기도 하다. 2001년 클린턴 정부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경제 지원을 하면 2차 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처럼 자유 민주 국가와 동반자적 성장을 해줄 것이란 기대 착각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촉발했을 때 중국은 기축통화인 푼달러를 넘보며 세계 패권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과거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달라졌단 말인가. 한마디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졌다. 신자유주의의 패배이기도 하다. 돈되는 사업만 하고 제조업이나 철강 조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모두 버렸다. 그 결과로 빈부격차는 심화하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이었던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면서 소위 러스트벨트를 양산하고 말았다. 이러한 틈새를 잘 활용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아메리카 파스트는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를 되찾고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지만, 패권국으로서의 권위와 체면도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식 이하의 러비공 전략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팩트 체크 매체인 ‘폴리티팩트’(PolitiFact)’는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의 공식 발언 중 69%를 대부분 거짓(21%), 거짓(33%), 사뻏간 거짓(15%)으로 분류하여 발표한 바 있다. 또한 FBI나

CIA같은 정보기관 수장에게 충성률 강요하며 국회의 사당을 침탈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CNN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을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몰아가면서 사법부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인 제롬 파월에게도 금리인하를 안 하면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주의의 수호에 가장 핵심적 규범인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관점에서 트럼프는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고 차베스나 에르도안과 같은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공화당 지도부도 폭스뉴스나 부유한 외부 집단에 포획되어 트럼프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국제사회도 불안정한 상태이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이런 복잡하고도 어려운 여건 속에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날아들 청구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세는 이미 운을 댔 상태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영권이나 그린란드 매입설 나아가 가자지구 개발과 상호 관세,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이다. 한국은 패상하고 김정일과 단독협상으로 종전 선언과 함께 북미 수교까지 밀어붙여 한미일 방위 체제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은 상상이 아닌 시나리오 중 하나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서 먹고사는 민생 경제부터 외교 안보 등 수많은 개혁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김현종이 말한 양복 입은 글래제이터가 필요한 이유이다.

집현전과 규장각

본디 경연은 유학의 경서를 강론연마하고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했던 그야말로 임금의 공부하고 연구한 자리일 것이다. 세종은 무려 1898회, 정조는 직접 중하급 관리를 가르쳐 인재를 발굴하는 ‘초계문신(抄啓文臣)’까지 펼쳤다. 반면 중종반정으로 왕에서 폐위된 연산군은 경연을 아예 폐지하였고 광해군은 재위기간 동안 고작 14회밖에 참석하지 않았음은 시사한 바가 크다.

좀 과장하면 ‘세종이 곧 조선의 역사’라고 했듯이 세종의 업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당시 세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붙인 일과 인권의 사각인 노비 부부에게도 출산휴가를 강제했듯이 백성을 근본으로 삼았다. 집현전은 왕립인제사관학교로서 대종 때 계획했으나 운영이 그리 활발치 않다가 세종 대에 그 빛을 발휘했던 같다. 집현전 제학 정인지를 중심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황희, 맹사성 청백리가 가장 많았음은 당시 사회상을 엿 볼 수 있고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를 집작케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문명은 물론 문화예술이 융성했고 기간산업인 농업생산증가를 위해 우리 도양

과 기후에 맞는 ‘농사직설(農事直設)’도 편찬했다.

조선 22대 정조 임금은 왕실 학문 연구 기관이자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신설했는데 오늘날 국립중앙도서관 격이다.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인 북학의 박제가, 발해고 유득공을 등용하여 조선의 르네상스와 실학을 완성하는 계기가 됐다. 정조는 신도시 화성을 건설했으며 화성능 행차 시 술한 현장 민원을 해결해 백성의 고충을 덜어줬다. 또 탕평책을 완성했고 영남과 서북, 동북의 지역차별을 철폐해 인재를 고루 등용시켰다.

최근 한 전임 대통령은 지도자인 리더는 늘 공부하고 사색해야만 국민을 위한 최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출판협회는 국가 지도자의 독서와 사유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다시 책 읽는 대통령을 바란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추천된 책은 김주완의 ‘읽으면 그만이지’, 강지나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등이다.

세종과 정조의 리더십과 함께 사회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독서와 사색을 통해 새 시대의 대통령이 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社 說

민주주의 복원…국민들이 해냈다

과제 많지만 희망의 ‘진짜 대한민국’ 보여주길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투표율이 80%에 근접한 가운데 대한민국 유권자 절반 이상이 21대 대통령으로 이 후보를 선택했다.

이번 대선은 12·3비상계엄에서 비롯된 만큼 일찌감치 이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다. 다만 몇가지 관전 포인트는 이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할 것이냐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느냐, 보수 대안을 내세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 득표율이었다. 결과는 ‘내란 종식’을 내세운 이 후보가 ‘독재 저지’를 주장한 김 후보를 두 자릿수 차이로 승리했는데 이는 국민들의 ‘내란 청산’ 욕구가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이 후보의 당선에 있어 호남의 역할은 너무나 컸다. 고비때마다 ‘전략적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 유권자들은 이번에도 압도적인 투표율과 이 후보 지지로 내란 청산에 앞장섰다. 광주·전남·전북은 투표율과 이 후보 지지율에 있어 나란히 전국 1~3위를 휩쓸었다. 호남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서 이미 전국 최고 투표율로 내란 청산의 열망을 표출했는데 본투표에서도 마지막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무도한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민주주의를 국민의 손으로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여느 대선과 의미가 다르다. 진영 간 대결이 아니라 민주와 반민주, 상식과 비상식의 기준으로 투표에 임한 결과가 민주주의 복원과 헌정 질서 회복으로 귀결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광장에 모여 ‘빛의 혁명’을 일궈냈다. 지난한 윤석열의 탄핵 과정과 파기환송으로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 선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서 또 뜻있게 6개월을 버틴 결과 선거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일상 회

복을 염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궈 낸 승리다.

민주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처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조기 대선인 탓에 인수 과정 없이 오늘부터 당장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한 숨 돌릴 틈도 없다. 이재명호 앞에는 급박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해결 과제가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먹사니즘’을 강조해 온 터라 경제를 중심으로 한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국민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제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만큼 핍박을 받은 정치인도 없지만 그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약속했다. 양극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정치 양극화는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는데 소통과 포용으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그렇다고 내란 청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란 청산은 상대 진영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신군부의 5·18 학살 같은 권력자들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아 만행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12·3 비상계엄 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내란 청산일 것이다. 발등에 불이 된 미국의 관세전쟁을 비롯한 외교 안보 문제와 거둬 문제점을 노출한 대통령 단임제를 끝내고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 논의도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야당 대표로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도 있겠지만 그의 검증된 능력 때문이기도 하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치인으로도 꺾이지 않는 오뚜기 정신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지난 3년간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초래한 무능과 비극을 뼈저리게 체령했다. 호남 유권자들을 필두로 국민들은 준비된 정치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 줄 ‘진짜 대한민국’이 기대된다.

無 等 鼓

‘완장(腕章)’은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팔에 두르는 표장이다. 말 그대로 글(章)을 새겨 팔(腕)에 두르는 물건으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얼마 전 열린 2024-2025 시즌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는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우승을 이끌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어떤 완장보다 빛나보였다. 완장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다. 권위의 상징이자, 자리를 위임받았다는 표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자리를 바꾸면 달라진다

완장의 무게

완장의 자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는 자리일 수 있다. 겸손을 말했던 이가 실제로 겸손했다는 표시다. 한지, 공감을 외쳤던 이가 진심으로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 자리를 바꾸면 달라진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당선 전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당선 후에는 권위적으로 비쳐질 때가 있다. 비단 대통령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조직의 장, 회의의 사회자, 심지어 학급 반장까지 우리는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의 위에 서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시험대에 오른다.

리더의 자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는 자리일 수 있다. 겸손을 말했던 이가 실제로 겸손한지, 공감을 외쳤던 이가 진심으로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 자리를 바꾸면 달라진다

오늘, 한 명의 새로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는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으로 요동치는 지금, 그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게 느껴질 때다 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의아해하지만 어쩌면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이 품고 있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른다.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문 화 사 업 국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220-0541
정 치 부 220-0634	에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경 세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무 루 220-055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